보 도 자 료		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배포 일자	2025.8.1.(금)/ 총3매(본문2,붙임1)	
자료 제공	• 어촌연구부 박상우 부장(051-797-4562) • 어촌연구부 어촌·어항정책연구실 이호림 실장(051-797-4720) •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이준철 전임사무원(051-797-4393)	
배포 부서	• 성과홍보실(강자운 행정원 051-797-4396, 이제영 실장 051-797-4381)	
보도 일시	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	
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, www.kmi.re.kr		

'2025 세계어촌대회' D-100일, 홈페이지 오픈 및 사무국 출범 등 본격 시동

-글로컬 어촌 플랫폼, 지속가능한 어촌 미래 비전과 발전 논의-

-지난 대회 아카이브 자료 구축, 사전등록 등 만반의 준비 나서-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조정희)은 8월 1일(금) '2025 세계어촌대회(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shing Communities 2025)' 개막 100일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(https://icfc2025.org)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세계어촌대회는 2023년 부산, 2024년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며,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인천에서 열린다.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최한다.

세계어촌대회는 국내 주요 산·학·연·정 유관기관은 물론,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,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(UNESCAP), 세계은행(World Bank)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40여 개국의 어촌공동체가 참여해 공동 과제를 논의하고 국가 및 지역 간 상생·협력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2025 세계어촌대회의 대주제는 '하나의 바다, 하나의 어촌: 지역과 사람, 그리고 환경을 잇는 어촌의 미래(One Ocean, One Community: The Future of Fishing Communities - Connecting Regions, People and Nature)'로, 공동체와 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 지구적 협력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컬 어촌 개방형 플랫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
행사 프로그램은 ▲개·폐회식 ▲국가별 대표자 회의 ▲국가·지역 간 협력 및 연대 ▲청년·여성어업인 역할 강화 ▲수산자원과 어촌의 미래 ▲기후위기 대응 ▲어촌관광 ▲청색어항 등 국내외 공식-협력 세션으로 구성되며, 전시·홍보 부스 및 현장 투어 등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된다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전 세계 어촌을 매개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고, 대한민국이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어촌 분야 국제협력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새롭게 정비된 공식 홈페이지는 ▲지난 행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▲참가자 등록 ▲주요 프로그램 소개(국가 대표자 회의, 공식·협력 세션, 부대행사) ▲뉴스레터 구독 ▲후원 참여 등을 갖추고 있으며, 영어, 스페인어, 프랑스어, 한국어 등 4개 국어로 정보를 제공한다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“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어촌 문제에 대해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, 어촌의 미래 비전과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다”고 말하며 “이번 대회를 통해 어업인을 비롯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촌의 다채로운 가치와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”고 전했다.

※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MI 어촌연구부 어촌·어항정책연구실 이호림 실장(051-797-4720, holiml@kmi.re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25 세계어촌대회 포스터

* 공식 홈페이지 URL: https://icfc2025.org